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MAKE RUSSIA GREAT AGAIN

가제 : 그레이트 러시아, 어게인! - 푸틴의 재선을 결정할 그 날 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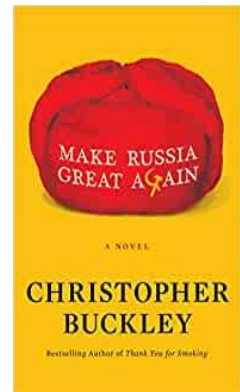
저자 : Christopher Buckley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20년 7월 14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영화화되기도 한 베스트셀러 『Thank You for Smoking』의 저자이자 촌철살인의 정치 풍자로 유명한 저자의 작가의 신작!**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례적인 사건 이후, 세계를 발칵 뒤집을만한 또 하나의 정치 스캔들이 등장한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러시아 정부가 직접 해킹을 시도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다. 2018년 CIA에서 이를 증명하는 내사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러시아 측 역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저자는 이 정치 스캔들에 착안해 그의 새로운 풍자 소설에서 러시아 대선에 개입한 미국인 해커들 때문에 푸틴이 마침내 권력을 잃고 러시아가 전례 없는 대혼란 상태에 빠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7대 참모진 중 한 사람인 ‘허버트 뉴터먼’이라는 가상 인물이 들려주는 회고록 형식으로, 너무 현실적이다 못해 불편하기까지 하면서도 날카로운 유머와 통찰력이 돋보이는, 미국 최고의 정치 풍자가의 소설이다.

흔히 사람들은 허버트 뉴터먼에게 어떻게 그런 작자, 그러니까 트럼프를 위해 일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건지 묻곤 했다. 트럼프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크라이스트 트럼프가 세운 부동산 기업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을 도널드 트럼프가 물려 받은 후, 허버트는 ‘트럼프 매그니피카’에서 식음료 관리자를 거쳐 ‘트럼프 블러디 골프 런 코스’에서 제 1급 총괄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약 27년 간 그를 위해 일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트럼프 정부의 참모장이 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전화가 걸려 왔을 당시, 그는 이미 은퇴를 했으며, 그의 아내인 헤타는 심지어 전화기 발신자에 ‘백악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곤 화들짝 놀라 절대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기까지 했다. 아내와 실랑이 끝에 결국 전화를 받았을 때, 트럼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대인 친구, 잘 지내시는가?'라며 친숙한 목소리로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다. 트럼프는 기분이 좋을 때면 허버트를 향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대인, 나의 유대인'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허버트는 그 말이 썩 달갑지는 않았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다. 트럼프는 종종 백악관 집사 중 한 명에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불렀고 한 해군 참모에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멕시코인'이라고 부르곤 했기 때문에 허버트 역시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다. 아내를 의식한 허버트는 일부러 건경하고 평안하게 은퇴 후 삶을 보내고 있다고 안부를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허버트가 자신이 만난 최고의 관리자였으며, 아직 은퇴를 하기엔 너무 젊으니 자신을 위해 허접한 부엌이 아닌 백악관에서 일하는 것이 어떨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 제안은 결코 쉽게 승낙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내 헤타는 이제서야 트럼프의 손에서 벗어난 남편 허버트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고 있었고, 허버트 역시 백악관 참모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던 막중한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트럼프와 오랫동안 일을 하며 맛보았던 성취감이 그리기도 했고, 그에 대한 충성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수락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허버트가 아내를 설득하기도 전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버트가 '새로운 백악관 참모'가 되었음을 알린다.

그리고 그날 이 후 허버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된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에서는 앞다투어 트럼프 정부의 참모가 된 허버트에 대해 보도했고, 허버트는 트럼프가 왜 그토록 언론 매체들을 증오했는지 깨닫는다. 또 평소에 선망하던 폭스 뉴스 진행자의 전화를 받고 그의 아침 어린 찬사에 괜히 우쭐해지기도 한다. 백악관에 정식으로 입성한 후, 그는 여태껏 접대 준비 전문가로 일했던 지난 삶과 정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곧바로 깨닫는다. 그러다 어느새 그는 러시아와 관련된 음모에 깊숙이 연관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사탄 숭배 모임에 참여했다는 소문들을 덮고 트럼프를 재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가 이 모든 과정에서 목격한 것은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이 추악한 현실이었다. 곧 미 대선을 앞두고, 세계 최고 지도자들과 워싱턴 정치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시의적절한 풍자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토퍼 버클리 (Christopher Buckley)는 소설가, 수필가, 비평가, 잡지 편집자 및 회고록 작가이다. 전작으로는 『Thank You for Smoking』, 『The Judge Hunter』, 『The Relic Master』가 있다. 그는 선원 및 백악관 연설 작가로 일한 바 있으며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며, 전세계 70여 개 도시에서 강연했다. 또한 그는 Thurber Prize for American Humor, Washington Irving Medal for Literary Excellence를 수상했다.

제목 : ALBERT EINSTEIN SPEAKING

가제 : 아인슈타인 전화 바꿨습니다 - 완벽한 천재였지만,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던 아인슈타인과의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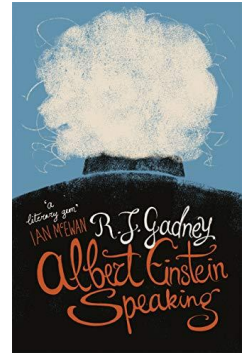
저자 : R. J. Gadney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273 페이지

장르 : 전기 소설



* "박진감 넘치는 어조로 허구와 사실을 뒤섞어 놓은 소설" - 「I뉴스」

* "아인슈타인의 삶을 섬세하게 그린 소설. 저자는 역사적 사실과 따뜻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기묘하면서도 빛나는 소설을 만들어냈다. 마지막 장면은 아마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아 있을 것이다."- 베스트 셀러 작가, 이언 매큐언

독일에서 전기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20 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중 한 사람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여동생인 마야에게 만약 모두가 자신과 같은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는 아마 소설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의 드라마틱했다. 실제 아인슈타인의 사진들과 그가 주고받은 서신들이 더해져, 소설인지 자서전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이 매력적인 구성의 소설에서 저자는 이 책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 어느 날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맺게 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1954년 3월 14일 뉴저지 주, 프린스턴. 그날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흔 다섯 번째 생일이었고, 그는 아침 서재 책상에 앉아 있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가 자신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를 받자 여자는 당황하며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다며 전화 번호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말했고 그 여자는 말도 안 된다는듯이 어떻게 자기 전화 번호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의 이름을 댈 수 있냐며 따지듯 묻는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은 잘 외우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불쑥 몇 살인지 물었다. 이름은 ‘미미 보포트’이며, 열일곱이라고 소개하는 그녀에게 아인슈타인은 오늘이 자신의 일흔 다섯 번째 생일이라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미미에게 아인슈타인은 그녀 덕분에 귀한 철학적 깨달음을 선물로 받게 되어 고맙다고 한다. 미미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묻자, 아인슈타인은 자신에게는 맞는 번호이지만 미미에게는 틀린 번호라는 이 사실 자체가 흥미로운 철학적 의문이며 수수께끼라고 말했고 미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음에 다시 또 통화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자 미미는 아인슈타인이 정말 그 ‘천재 아인슈타인’이 맞다면 언제든지 다시 통화하고 싶다고 말한 후 전화를

꿈는다.

이 소설은 미미와의 전화를 통해 변화하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생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모자란 머리'를 타고난 아인슈타인은 왕성한 호기심과 기발한 생각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첫 번째 아내를 만나기 이전 그는 자신의 취향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지한 성격을 가진 '마리 원틀러'라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자신의 삶은 온통 과학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를 잔인하게 버렸다. 그 후 같은 과학자의 길을 걷고 있던 밀레바를 만났다. 밀레바는 아인슈타인의 과학에 대한 열정과 집념에 반한 밀레바는 가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아인슈타인과 결혼했지만, 비밀도 많고 바람둥이였던 그와의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 아인슈타인이 승승장구하며 세계적인 과학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동안 밀레바는 혼자 모든 살림을 도맡아 꾸리며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아들을 홀로 돌보아야 했다. 그의 과학적 명성과는 별개로 아인슈타인에게 인간적인 결함이 많았다. 그는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삶을 살았으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과학자이자 유대인으로서 경호 인력 없이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지적인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위해 폭력적인 세상과 나치, 인종주의, 반 유대주의 등 더 많은 것들과 싸워야 했다.

겨우 일곱 살의 나이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던 소년 아인슈타인은 이 소설에서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된 미미에게 '우리는 모두 이 작은 지구에 모여 있는 것일 뿐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 자신이 다 그 중심에 있는 줄 안다'라고 말한다. 위대한 과학자로 칭송 받았지만 결함이 가득한 인물인 동시에 집단의 광기와 자신 내면의 공포와 싸우며 평생을 살아야 했던 '완벽하지 않은 인간' 아인슈타인에 대한 감동적인 전기 소설이다.

<저자 소개>

가드니(R. J. Gadney)는 작가이자 예술가이자 학자이다. 그는 캠브리지와 세인트 캐서린 칼리지에서 영어, 미술 및 건축을 전공했으며 대학에서 단기 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이후 MIT, 하버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헤리티지 박물관과 모스크바의 예술 과학 아카데미에서 강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TV 프로그램의 시나리오를 집필했으며 범죄 소설도 출간했다. 그는 2018년 5월에 사망했다.

제목 : A JOB YOU MOSTLY WON'T KNOW HOW TO DO

가제 : 그 누구도 능숙하지 않은 - 상실과 슬픔의 자리에 삶을 다시 세워
나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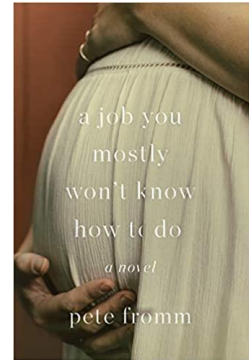
저자 : Pete Fromm

출판사: Counterpoint

발행일: 2020년 5월 2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2019년 ‘Mountains & Plains Independent Booksellers Association Reading the West Book Award’
최종 후보작

★ Pacific Northwest Bookseller Award에서 다섯 번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가의 작품

★ 2019년 5월 아마존 Top Ten Book 선정

★ "작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비극에 어떻게 대처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견디는지 잘 보여준다. 슬픔과 상실을 극복하는 일에 관한 고요하고도 우아한 소설이다." - 아마존, 이달의 최고의 책

무뚝뚝한 성격의 목수인 태즈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집을 수리하고 다듬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그의 아내 마린이 첫 아이를 임신하자 그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이제 본인의 집과 가정에도 사용할 때가 왔음을 느끼며, 가족의 꿈과 미래에 더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완벽한 삶을 위한 청사진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느끼는 책임감, 예기치 못한 기쁨과 슬픔 그 사이에서 흐려지는 것만 같다. 또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행복이란 매우 기만적인 단어인 것만 같다. 20년이 넘도록 11권의 책을 발표하면서 미국 서부 문학의 전설과 같은 존재가 된 거장이 쓴 새로운 시작과, 두 번째 기회, 용기, 사랑에 관한 소설이다.

처음 마린이 태즈에게 그들이 곧 부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태즈는 몸을 가누기 힘들만큼 큰 기쁨을 느꼈던 동시에 무거운 마음으로, 낡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는 하루 빨리 자신의 절친한 친구 루디와 함께 이 집을 아기와 아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한 곳으로 고치고 싶다고 생각했다.

7개월 후, 마린은 이제 배가 꽤 불렀다. 태즈는 마린을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 함께 몬태나 주의 아름다운 강과 그 강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카약을 구경했다. 이 모든 것들은 7년 전, 오하이오에서 온 대학생인 마린을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태즈가 마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었다. 이십 대 후반에 접어든 이 젊은 부부에게는 앞으로 함께 이루고 싶은 꿈과 소원들이 무궁무진했고 아기가 생기자 태즈는 더욱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마린의 의견에 따라 곧 태어날 딸의 이름도 ‘밋지’라고 지어두었다.

하지만 곧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준비할 것들로 가득했다. 부부 침실은 물론이고 부엌이나 아기 방마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다. 태즈는 일주일의 반 정도는 남의 집을 손보거나 목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수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의 많은 공간들이 비닐로 덮여 있었다. 결국 태즈는 마린에게 공사를 하는 동안 모텔에서 머무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하고, 마린은 여유 없는 형편 때문에 망설이지만 결국 태즈의 설득에 못 이겨 모텔로 간다.

일주일 후, 태즈와 마린은 침대 매트리스를 새로 바꾸고 돈이 없어 사지 못한 시트 대신 비닐 샤워막을 그 위에 씌웠다. 비록 포근한 침대 시트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고 아직 완벽한 어른도, 부모도 되지 못한 서로를 응원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산 너머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던 그 때, 마린은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태즈의 손을 잡고 숨을 가쁘게 몰아 쉬기 시작했다. 태즈는 마린을 데리고 즉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얼마간 지나 그는 흔들리고 있는 침대 옆에 앉아 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고 끔찍한 고통 끝에 어느 새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린을 보았다. 하지만 마린은 계속 헐떡거렸고 그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고만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태즈의 이름을 불렀다. 주변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는 이미 혼란에 빠진 상태였고 다른 의료진들 역시 갑자기 병실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밋지는 어느 새 어디로 옮겨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마린은 태즈의 손이 마치 이 지구 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붙들어 줄 무언가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태즈는 자신이 어디선가 들은 모든 병명을 떠올렸고 혹시 마린이 폐렴에라도 걸린 것은 아닌지,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때, 루디가 나타나 덜덜 떨고 있던 그를 붙잡았다. 마린이 급성 희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그로부터 3일 후, 태즈는 루디, 아기 밋지와 함께 아직도 공사 중인 집으로 돌아왔고 마린이 준비해둔 분유를 가만히 바라본다. 태즈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려 하지만 루디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과 또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젊은 유모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 번 새 인생을 시작할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는 좋은 아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몬태나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묘사와 더불어 폐허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한 남자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페테 프롬(Pete Fromm)은 Pacific Northwest Booksellers Literary Award을 다섯 번 수상한 바 있으며 전작으로는 『If Not For This, As Cool As I Am』, 『How All This Started』가 있다. 현재 퍼시픽 대학의 교수이며 몬태나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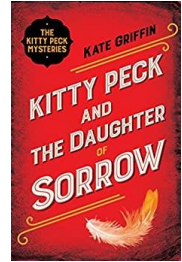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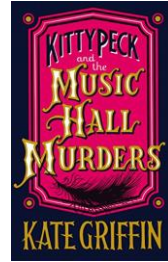
제목 : KITTY PECK SERIES

가제 : 키티 펙 시리즈 1, 2, 3권

저자 : Kate Griffin

출판사: Faber & Faber

장르 : 스릴러



★ "훌륭한 데뷔작. 여태껏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모습이 이토록 훌륭하게 묘사된 적은 없었다." - 「버지니아 블랙번 선데이 익스프레스」

★ "빅토리아 런던의 어두운 골목마다 범죄와 위험이 도사리며 어슬렁 거리고 있다."- 「선데이 타임즈」

★ "위트와 무시 무시한 어둠으로 가득 찬 훌륭한 액션 스토리의 결합" - 「크라임 리뷰」

1권: KITTY PECK AND THE MUSIC HALL MURDERS(키티 펙과 음악당 살인 사건) / 출간일: 2013년 6월 25일, 분량: 368 페이지

1880년,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템스강은 마치 어두운 비밀이라도 껴안고 있는 것처럼 음울한 회색으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이스트 엔드의 오래된 음악당 ‘파라다이스’에서 주인공 키티 펙은 청소부이자, 재봉사, 무대 도우미로 일하며 남몰래 음악당 구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깊은 밤에는 새장 같은 곳에서 얇은 잠옷만 입은 채 쪽잠을 자며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열일곱 살인 키티는 가족 모두를 잃고 혈혈단신 런던으로 와 온갖 허드레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음악당 소속 합창단 소녀들이 하나 둘씩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키티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명석한 두뇌와 대담한 심장을 가진 소녀였고 이를 알아본 아편 중독에 악질인 음악당 주인 진저 레이디는 자신의 재산과 음악당을 지키기 위해 키티 펙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라며 협박에 가까운 요청을 한다. 사실 진저 레이디는 이 년 전 실종된 키티의 오빠 조이의 행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또 진저 레이디는 키티를 공중 그네 묘기꾼으로 훈련시켜 관중들 위로 날아다니며 속임수꾼들을 감시하도록 만든다. 그러던 중 키티는 일약 스타덤에 올라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는 유명인이 된다. 한편, 키티는 한 익명의 예술가가 그린 그림인 시나바 걸스(Cinnabar Girls) 그림을 발견하게 되고 이 미스터리한 그림이 바로 실종 사건들의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키티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공중 그네는 물론 위험한 살인자를 쫓는 일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소녀였고 그녀의 곁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예술가인 친구 루카가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소녀들이 다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키티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그 그림의 작가이자, 살인범인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마침내 키티와 루카는 샴페인이 가득한 웨스트 엔드의 한 갤러리로 가게 된다.

2권: Kitty Peck and the Child of Ill Fortune(키티 펙과 불운의 아이) / 출간일: 2015년 6월 30일, 분량: 416 페이지

활기 넘치던 키티는 이제 제법 성숙한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레이디 진저가 자신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레이디 진저의 작은 제국이자, 이스트 엔드의 범죄 소굴이었던 파라다이스를 어쩔 수 없이 상속 받게 된 키티는 매춘부터 부패, 협박, 폭력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갖 범죄를 직접 다루어야 한다는 버거운 현실 앞에 서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그녀는 절박한 마음에, 오래 전 소식이 끊긴 오빠를 찾기 위해 파리로 향한다. 파리에서 그녀는 퇴폐적인 보헤미안들의 세계에 매료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도록 자유롭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옷을 입고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또한 오빠와도 재회하고, 오빠의 수상한 친구의 요청으로 한 어린 남자 아기를 런던까지 데려오게 된다. 그러나 곧 키티는 누군가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키티는 레이디 진저가 알려준 일련의 비밀스런 단서와 게이 친구인 루카의 도움 덕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러시아의 로마노프 통치자와 영국 여왕 빅토리아 사이의 스캔들에 대해서 밝혀 내고 결국 여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3권: Kitty Peck and the Daughter of Sorrow(키티 펙과 슬픔의 딸) / 출간일: 2017년 7월 4일, 분량: 528 페이지

어느 날 갑자기 레이디 진저는 종적을 감추어 버렸고, 파라다이스를 물려 받아 운영하며 남작 부인 작위를 받은 키티 펙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런던 지하 범죄 조직의 또 다른 거물들, 즉 또 다른 '남작들'이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키티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때문에 키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나 음악당 직원들이 갑자기 죽거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이스트 엔드에 계속해서 외설스러운 낙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키티를 두려워했던 밀수업자들까지 그녀를 노리고 있었고 그녀가 일군 음악당마저 어려움에 처한다. 키티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던 일과 해야 했던 일에 대해 반추하며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음모와 반전들은 키티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할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키티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한 스릴러이자, 삶에 대한 작가의 뛰어난 통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케이트 그리핀(Kate Griffin)은 지역 신문의 기자이자 골동품 상인의 조수로 일한 바 있으며 현재는 영국 고대 건물 보호 협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첫 번째 저서인 『Kitty Peck and the Music Hall Murders』으로 Stylist / Faber 주최 범죄 소설 쓰기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NON-FICTION

제목 : 7 RULES FOR POSITIVE, PRODUCTIVE CHANGE

가제 : 끌리면, 변한다: '이끌림'을 통한 변화의 7가지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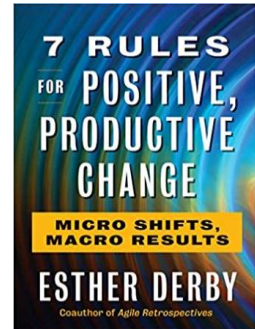
저자 : Esther Derby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9년 8월 6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영, 자기계발



* "변화가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필수 안전 장치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람과 시스템을 연결시킨 방식을 소개하는 책. 지속적인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 - Pivotal의 부회장, 엘리자베스 헨드릭슨

* "소프트웨어 책임자로서 나는 오랫동안 변화를 주도하고 지원해야 할 자리에 있다. 몇 년만 이 책을 더 빨리 만났다면 훨씬 더 빨리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 AstrumU 엔지니어링 부사장, 케빈 골드스미스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만 생각해도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팀, 조직, 산업의 움직임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하지만 한 조직이나 회사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종종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팀원들을 강제로 변화하도록 몰아세우고, 이는 팀원들 사이에 분노와 저항이라는 역효과를 만들어낸다.

'사원'으로서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인 저자 에스더 더비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이상적인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완전히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동참하도록 만들 수 있는 '7 가지 규칙'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먼저 왜 우리가 여태껏 조직적 변화에 있어 번번히 실패했는지 요목조목 따져보고 그 문제를 진단한다.

저자는 조직의 변화를 위한 시도는 언제나 강제적 지시, 보상 또는 위계 질서에 의존하는 하향식 명령 전달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심지어 선의를 가진 지도자들조차 직원들을 부속품처럼 취급하며 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기껏해야 참여나 헌신이 아닌, 규정과 규칙을 지키는 것 정도의 효과만 날거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어떤 성과도 창출하지 못한다고 꼬집는다. 오늘날 가장 성공한 회사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가 생각하는 변화는 반드시 '이끌림'을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끌림을

통한 변화와 혁신은 애초부터 사람들 사이의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적극성에 힘입어 훨씬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바로 '이끌림'을 통한 변화에 대한 7 가지 규칙으로 과거를 존중하기, 무엇인지 잘 평가하기, 네트워크에 주의를 기울일 것, 실험, 인도할 것, 표준화하지 말 것, 내 자신을 이용할 것을 꼽으며 이와 관련된 쉽고 간단한 설명들을 제공한다. 내면의 동기를 이끌어 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

- 1 장: 매력에 의한 변화
- 2 장: 협동을 위해 노력하라
- 3 장: 과거, 현재, 사람들을 존중하라
- 4 장: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하라
- 5 장: 네트워크에 참석하라
- 6 장: 실험
- 7 장: 안내 및 변형 허용
- 8 장: 자신을 이용하라
- 결론

<저자 소개>

에스더 더비(Esther Derby)는 Esther Derby Associates, Inc.의 대표이다. 원래 프로그래머로 훈련 받았던 그녀는 한 회사가 성공하기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업무 환경, 문화 및 인간 역학 설계 방법에 대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대담회와 상담회를 열고 있으며, Scrum Alliance 와 AYE 컨퍼런스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며 Agile Alliance 의 전 이사를 지낸 바 있다. 또한 그녀는 세 권의 책을 공동 집필했으며, 100 편이 넘는 기사를 냈다.

제목 : LONG LIVE THE QUEENS

가제 : 여왕열전: 시대를 풍미했던 여성 군주들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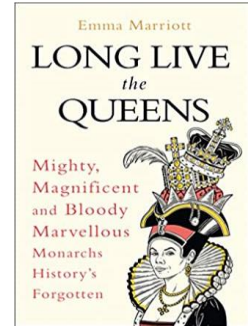
저자 : Emma Marriott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10월 17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역사



*** 저평가된 여성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요즘 경향에 맞춰, 최초로 잊혀진 여왕과 여성 군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

역사상 많은 여왕들이 상당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여왕의 이름들은 기껏해야 몇 손가락에 꼽힐 만큼, 걸맞는 명성과 관심을 누리지는 못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로마 황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을 점령한 중동의 반란군 여왕 제노비아 여왕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1066 년 영국 노먼을 침략한 정복자 윌리엄 (William the Conqueror)은 역사상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플란더스의 강력한 동맹이자 그의 아내 마틸다에 대해서는 역시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책은 바로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군주들을 다시 조명하는 책이다. 책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인물은 현명한 정치인이자 유능한 행정관이었으며 전시에는 강력한 군대 지휘관으로 활약했던 지도자들이었고 이 중 어떤 이들은 다른 남성 지도자들만큼이나 치명적인 결함과 잔인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업적을 가진 남성 지도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오랫동안 잊혀 지거나 간과되었고 때로는 불공평한 방식으로 오해를 받고 야비한 악녀로 역사의 선상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어떤 여왕들은 어린 상속인을 대신하여 나라를 통치하기도 했고 왕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권력을 차지한 여왕들도 있었다. 또 다른 여왕들은 무능한 남편의 힘을 빼앗아 남편보다 더 강력한 통치권과 정치력을 발휘하며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여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왕들은 여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후계자 생산에 힘써야 했고 아무리 남편인 왕이 잘못을 저질러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왕실의 인간적인 면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가난한 자에게는 자선을 베풀고 종교 단체에게 전심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가족들의 평화를 도모하는 역할까지 도맡아야 했다.

이 책은 이처럼 신라 선덕여왕, 엘리자베스 1 세 여왕 및 캐서린 대왕 같은 인물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잊혀진 여왕들 즉, 통치권을 가진 여왕들은 물론이고 통치자 또는 왕의 아내 혹은 왕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가부장적 세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

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희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만 했던 여성 통치자들의 업적과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역사서이다.

<목차>

제 1 장. 개척자들

플랜더스의 마틸다

우 제티안

마가렛 튜더

아르와 알 솔라이

신라의 선덕

조지아의 타마르

제 2 장. 자유로운 사상가들

프랑스의 헨리에타 마리아

징가 여왕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테오도라 황후

브런즈윅의 캐롤라인

사이이다 알-후라

제 3 장. 전사들

부디카

프로방스의 엘리노어

트롱 트랙

아미나 여왕

야아 아산테와아

(이하 생략, 총 7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엠마 매리엇(Emma Marriot)은 전문 작가이자 편집자이며 여러 인기 역사 도서들의 저자이다. 전작으로는 『The History of the World in Bite-Sized Chunks』, 『Bad History』, 『The World of Vanity Fair』, 『The World of Poldark』 이 있다.

제목 : THE FEAR-FIGHTER MANUAL

가제 :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Be-Say-Do'의 두려움 매뉴얼

저자 : Luvvie Ajayi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21년 상반기

분량 : 프로포절 49 페이지

장르 : 처세



*** 450 만회 조회수를 기록한 화제의 테드 강연 “Getting Comfortable with Being Uncomfortable”의 주인공이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간**

이 책의 저자 루비 아야이는 자신을 일약 유명인으로 만들어 준 인기 테드 강연에 출연한 이후, 전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았다.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으면서 이들에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커다란 장애물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저자는 이 두려움, 공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책을 쓰기로 다짐했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두려움을 넘어 자신과 같은 ‘트러블메이커’로 사는 것 또한 특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특권층에 위치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자칭 ‘트러블메이커 전문가’인 그녀는 흑인이자 여성이며, 이민자이자 빈민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 불리한 지점에서조차 트러블메이커로서 살기로 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저자조차 이 책을 쓰며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줄 귀중한 기회를 놓쳐 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공포를 이겨내고 실수에도 개의치 않고 곳곳이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지 설명한다.

저자는 크게 BE (~하게 되어라), DO (~해라), SAY (~라고 말하라) 나뉘어진 이 섹션에서 어떻게 공포와 맞서 싸울 수 있을지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먼저 ‘BE 섹션’에서 저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공포에 맞서는 전쟁의 절반은 우리 자신과 불안, 스스로 지고 있는 짐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SAY 섹션’에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며 내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말하는 법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즉,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세상과 맞서는 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DO 섹션’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의 진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말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침묵을 깨고 그 동안 마음 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직접 행동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일상 속에서 두렵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해 왔던 내 자신의 목소리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동시에 스스로의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강한 자기 계발서이다.

<목차>

서문: 두려움과 문제 해결

섹션 1: BE

- 제 1 장 : 자신을 알라
- 제 2 장 : 투머치가 되어라
- 제 3 장 : 원대한 꿈을 가져라
- 제 4 장 : 멋짐을 가져라
- 제 5 장 : 현재 위치를 신뢰하라
- 제 6 장 : 변화와 격렬한 성장

섹션 2: SAY

- 제 7 장 : 진실을 말하라
 - 제 8 장 : 추가 요청
 - 제 9 장 : 선 굿기
 - 10 장 :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신용을 주어라
- (이하 생략, 총 3 섹션, 16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루비 아야이(Luvvie Ajayi)는 나이지리아의 작가, 연설자 및 디지털 전략가이다. 그녀의 첫 번째 책 『I'm Judging You: The Do-Better Manual』은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이다.

제목 : PSYCHEDELIC APES

가제 : 아웃사이드 사이언티스트: 과학계의 괴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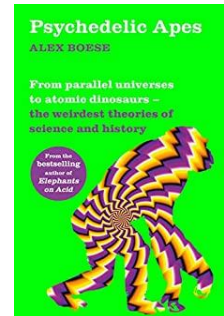
저자 : Alex Boese

출판사: Macmillan

발행일: 2019년 7월 25일

분량 : 321 페이지

장르 : 과학, 역사



***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저자가 들려주는 과학 역사상 가장 괴짜스러운 이론들**

우리는 혹시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몇몇 질병들은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닐까? 행성들이 폭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혹시 공룡들은 핵전쟁 때문에 멸종한 것은 아닐까? 인간이 수생 원숭이의 후손일 가능성은? 알고 보면 예수는 줄리어스 시저가 아닐까?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만 단순한 농담이나 호기심이 아니다. 지난 수년 간 이러한 독특한 추측과 가설이 기존의 상식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들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곳곳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던 학자들이 실제로 학계에 발표했던 이론들 속 의문들이다. 물론 대부분의 주류 과학자들은 결코 이 이론들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말도 안 되는 낭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중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과학 이론들이 과학계를 어지럽힌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짜 같은 이론들은 과학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공고한 지적 문화의 토양에서도 끊임 없이 새롭고 독특한 이론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오류의 역사를 짚거나 전통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이 이론들의 과학적,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정죄하거나 잘못된 신념을 비판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저자 알렉스 보제는 그렇다고 이 책이 이 이론들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책도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이론들에 대해 매료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이 책까지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이론들은 결과적으로는 오류투성이에, 낭설로 끝나게 되었지만 결국 이 이론들의 매력은 모두 독특한 상상력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이론들의 창시자들은 비정상적인 개념을 꾸준히 옹호해왔다는 이유로 과학계에서 배척된 전설적인 아웃사이드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과학 이론들은 과학계에 또 다른 관점을 더했고 이성과 논리,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계의 중심에 있는 긴장을 드러냈다.

사실 과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늘 회의론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지식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과학은 '절대적 확실성'이라는 개념에 반하여 언제나 의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험하는 학문이다. 즉, 애플의 유명한 광고 슬로건에서 언급되었듯이 모순주의나 '다른 생각'에

대해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과학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페르니쿠스, 다윈,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적 천재들 역시 자연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이해함으로써 과학적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다. 과학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지만, 만약 다수의 과학자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다면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기상천외한 이론들을 발표한 과학자들은 결국 ‘괴짜’들로 취급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주의 창조에서 인간의 진화, 문명의 탄생, 가장 최근의 과거에 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과학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해괴한 이론들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탐구하는 책이다.

<목차>

제 1 장. 우주론의 수수께끼들

빅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 라디오 천문학

우리 우주가 실제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면?

우주에 전자가 하나 밖에 없다면?

우리가 블랙홀 안에 살고 있다면?

이상한 일이 실현되었다: 암흑 물질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제 2 장. 열은 청록색 점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면 어떨까?

행성이 폭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상한 것이 실현되었다: 헬리오센트릭 이론

우리 태양계에 두 개의 태양이 있다면?

이상한 것이 현실화되었다: 대륙의 표류

(이하 생략, 총 5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알렉스 보제(Alex Boese)는 과학사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작으로는 『Museum of Hoaxes』, 『Hippo Eats Dwarf and Elephants on Acid』가 있으며 Museum of Hoaxes website를 만든 사람이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CONSTELLATIONS

가제 : 내 몸과 산다는 것: 태어나서 자라고, 사랑하고, 아프다 죽기까지 여자, 그리고 몸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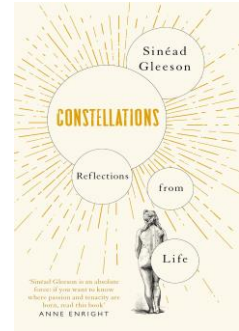
저자 : Sinead Gleeson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20년 4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페미니즘



★ 아일랜드 베스트셀러 1 위

★ 2020 년 Rathbones Folio Prize 최종 후보작, Irish Book Awards 논픽션 부문 수상작

★ "저자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을 강력한 그 무엇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엄청난 책이다." - 옵저버

★ "장엄하고 생생하며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책. 모든 여성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A Girl is Half-formed Thing』의 저자, 에이미어 맥브라이드

저자 시네드 글리슨은 책에서 ‘나는 내 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금속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별, 오래된 금속과 새로운 금속이 만나 내 피부 아래에서 반짝이는 금속 별자리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엉덩이 뼈가 약화되는 관절염을 앓았고 때문에 두 다리의 길이가 달라져 버렸다. 이후 그녀는 늘 절름거리며 지팡이 없이 걸을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고관절 뼈를 교체해야 했다. 또한 20 대에는 희귀 백혈병에 걸리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질병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과정 그 자체였다.

이 평범하지 않은 회고록에서 우리는 어머니, 아내, 학생, 조카딸, 딸, 환자, 작가 등 저자의 여러 모습과 역할에 대해 들여다보게 된다. 저자는 이 다양한 정체성들을 통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과 질병과 싸우는 과정에 대해 여과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그녀는 파마와 같은 사소한 것들부터 생명,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려주는데 이 중에는 DNA, 남편과의 첫 데이트, 낙태 논쟁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자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여성들의 질병과 고통을 사소하게 치부하는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 혐오 때문에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과 건강, 모성을 경험하는 육체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아일랜드의 여성은 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출생부터 첫사랑,

임신, 모성, 끔찍한 질병, 노년 및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몸으로서 겪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그녀는 예술가 프리다 칼로, 시인 루시 그레일리, 사진가 조 스펜스와 같은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불안한 눈으로 삶의 가려진 부분을 면밀히 응시하며 자신이 예술을 탐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삶을 살아냄으로써 얻는 맹렬한 기쁨과 고통, 우리 여성들의 보편적인 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회고록이다.

<목차>

- 1 장. 푸른 언덕과 분필 같은 뼈
 - 2 장. 머리카락
 - 3 장. 1960,000 마일의 피
 - 4 장. 우리의 공통 친구
 - 5 장. 임신 3 개월 차의 원자성에 관하여
 - 6 장. 판옵티콘 : 병원의 모습
 - 7 장. 모성의 달
 - 8 장. 귀신 들린 여자 귀신
 - 9 장. 어디가 아파요?
 - 10 장. 맥길 통증 지수를 기반으로 한 20 개의 이야기
 - 11 장. 상처는 그 자신의 빛을 발한다
- (이하 생략, 총 16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시네드 글리슨(Sinéad Gleeson)은 Best Irish Published Book at the Irish Book Awards 를 수상한 바 있는 두 작품 『The Long Gaze Back: an Anthology of Irish Women Writers』, 『The Glass Shore: Short Stories by Women Writers from the North of Ireland』 의 편집자이다. 또한 그녀는 2000 년부터 예술 평론가로 활동해 왔으며 RTÉ 의 'The Works'의 기자로도 일했고 The Irish Times, the Guardian 에 리뷰를 기고하기도 했다. 현재 그녀는 정기적으로 아일랜드 전역에서 열리는 예술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3 년부터 RTÉ 라디오에서 도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제목 : HOW TO FACE DEATH WITHOUT FEAR

가제 : 죽음 준비: 평온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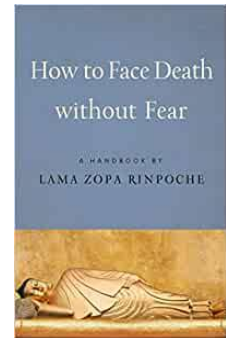
저자 : Zopa Rinpoche

출판사: Wisdom Publications,U.S

발행일: 2020년 7월 23일

분량 : 440 페이지

장르 : 심리, 처세



*** 유명 티베트 승려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나 스스로 역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책.**

우리의 삶은 대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있지만 그 중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나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닥쳐올 일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아마도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의 곁을 지키며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슬플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티베트 불교계의 라마(승려 지도자) 조파 리폰체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고귀한 환생을 결정하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마 조파 리폰체는 수십 년동안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익한 방식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가르쳐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지식을 전달하고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바로 그의 가르침을 엮은 책이자 재편집한 책이다. 라마 조파 리폰체는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아닌 은총과 용기를 가지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지혜롭게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자세한 가르침들을 알려준다.

그는 두루뭉술하거나 추상적인 설명이 아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망 전 몇 달 전, 몇 주 전, 며칠 전 단계별, 시기별로 해야 할 일과 그 순간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함께 하며 따라야 하는 명상 주문, 명상법, 기도문 등을 소개한다.

이 책에는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실습법들과 실제로 티베트 불교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간병인들, 호스피스 업계 종사자들이 실전에서 행하고 있는 행동 지침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 새로운 개정판에는 독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전처럼 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도록 87 개의 방법들이 친절하게 분류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장기 기증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 별 대처법과 명상가, 비 불교인, 반려 동물 등 다양한 이들의 죽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삶의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 고 오히려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풍부한 의식들과 깊은 위안을 전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편집자 서문: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

서문: 우리는 죽음에 대비해야 한다

1 부: 죽음과 환생에 대해 생각하는 법

1 장. 사망 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 장. 모두가 죽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3 장. 집착을 포기하면 죽음도 쉬워진다

4 장. 좋은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죽음에 대비하라

5 장. 살고 죽는 가장 좋은 방법: 다섯 가지 힘을 연습하라

6 장. 아미타불의 순수한 땅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기도하자

(총 6 부 29 장,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라마 조파 린포체(Lama Zopa Rinpoche)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티베트 불교의 마스터 중 하나이다. 그는 6 개 국가의 수도원과 30 개가 넘는 명상 센터를 포함한 국제 불교 프로젝트 네트워크 인 FPMT (Mahayana Tradition of Preservation for Foundation of the Mahayana Tradition)의 정신적 책임자이자 공동 창립자이며 이 단체는 나병 및 소아마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건강 및 영양 클리닉 및 클리닉, 호스피스, 학교, 출판 활동, 구금 시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을 재편집한 베네라블 로비나 쿠어틴 (Venerable Robina Courtin)은 1970 년대부터 여성 승려로 활동하고 있으며 라마 예쉬와 라마 조파 린포체가 운영중인 FPMT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수년 동안 그녀는 Wisdom Publications 의 편집 국장, Mandala Magazine 의 편집장, 해방형 교도소 프로젝트 담당 국장 및 순회 불교 교사로 재직한 바 있다.